

도심에 꽃핀 '학구파'들의 간경도량



삼선강원의 지량인 수화공연은 1999년 연화복지원장 해성 스님의 지도로 시작됐다. 지난 6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삼선강원의 학인들이 수화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수 기자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③ 삼선강원

서울 시내에도 조계종의 정식 인가 강원이 있다. 산중이 아닌 돈암동 주택가 도심 포교원이면서 국내 유일의 통학강원인 삼선강원(강주 묘순이) 바로 그곳.

삼선강원 학인은 일반 상주강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30분 상강례를 시작해 9시 30분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외부에서 각자 용무를 본다. 이곳을 다니는 학인 40여명 대부분은 각자 집에서 청소년포교, 어른스님 시봉, 대학·대학원·특수교육기관 재학 등 2-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낸다. 웬만한 근거가 아니면 업무도 내기 어려운 빠듯한 생활이다.

삼선강원은 1978년 의정부 약수선원에서 상주강원의 이력과정을 마치지 못한 비구니 스님들에게 간경의 기회주기 위해 지광(삼선포교원장) 스님과 강사 묘순 스님이 '주립강원'의 문을 열면서 시작했다. 대중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강사 도안 스님 학갑 수경 스님 중강 선문 스님

서울 소재 국내 유일 통학 강원 참회·포살 통해 대중습의 지도 규칙 엄격...결강 3번이면 퇴방

지만 그것은 편견이다. 4년을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중에도 휴강은 법회를 보는 때월 초하루·보름 이틀 밖에 없다. 결강 3번이면 퇴방처분을 받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모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을 다니는 만큼 학업에 임하는 열의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은 다른 사미니 강원과 마찬가지로 묘순 스님과 수경(학갑), 도안(강사), 선문(중강) 스님의 지도아래 교육원에서 정한 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교과 과정 외에 특별활동은 삼선강원의 자랑인 수화(手話)교육과 꽃꽂이 수업이 있다.

강원의 주목적이 '교육'과 '수행'을 통한 출가의 의의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면 대중습의를 익히는 면에서 통학강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 삼선강원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기 중 보름에 한번 대중공사와 한달에 한번 법공양 형태의 포살을 실시한다. 상주강원에 비해 대중습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곳 나름대로 삼지(입승, 참중, 총무)소임을 두고 의제와 품실을 학인들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대부분이 만학이었던 강원의 초창기 학인들 가운데는 주지를 맡고 있거나 큰 사찰의 중진 스님도 간혹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단 강원 안에서는 학인일 뿐이며 상·하반 사이의 위계가 엄격하다. 지금도 이런 전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강사스님들도 참회와 포살을 통해 부족하기 쉬운 대중습의를 지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02)923-0582

삼선강원이 배출한 스님들

올해로 20회 졸업생을 배출한 삼선강원의 동문은 약 200여명. 동문회장은 강원 4기 출신 해성 스님이 맡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화원 원장인 해성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으며 삼선강원 학인들의 수화노래 공연을 지도해주고 있다. 학인시절부터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던 스님들이 많았던 만큼 졸업 후에도 종단의 포교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을 자랑하고 있다. 주요 동문으로는 보명(불교연화꽃꽂이연합회 대표), 정명(연화꽃꽂이회 회장), 도현(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도현(BBS 기록한 만남 진행), 무구(우리출판사 대표), 수경(삼선강원 강사, 화정(행택)법명사 주지), 묘전(소적새마을 부관장), 선주(대구 보림사), 혜조(실천불교승가회), 경혜(미국 뉴욕 해인정사, 정오호 주시드니 관음사 스님) 등이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7> 헤일 스님

청정계행으로 70년 수행

한국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 前 총무원장 헤일(慧日, 86) 스님을 어렵게 찾았건만 만나자마자 "남에게 보여줄게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 15세에 전주 정혜사로 출가했고, 이제껏 한번도 정혜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한 세월이 무려 70년. 어찌 하고픈 말이 없으랴 싶어 졸라대니 "그저 '청정계행과 인유행'을 바탕으로 참선수행하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란다.

헤일 스님의 은사는 근세 비구니계의 큰 스승인 명주(明珠) 스님이다. 어려서 부모님따라 정혜사에 오면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자상하기 이를데 없던 스님이였다. 그 인품에 끌려 출가하게 됐고 50년 가까이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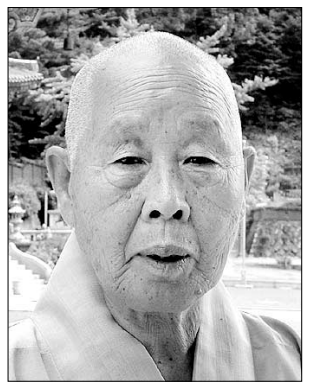
이렇게 시작된 전주에 불교회관 지어 재가자교육 위해 무상임대

헤일 스님은 가까이서 보낼까 지 기도로 일관하시오.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은 노스님의 큰 원력과 수행공덕이라 생각합니다."

헤일 스님은 가까이서 보낼까 지 기도로 일관하시오.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은 노스님의 큰 원력과 수행공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물질은 부족함이 풍부한데 사람들 마음은 각박하기 이를데 없어요. 모두가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1998년, 헤일 스님은 은사스님이 이루지 못한 대중포교를 위해 큰 결단을 했다. 전주 삼전동에 도심포교당 '완산불교회관'을 건립한 것이다. 그때는 IMF로 어려웠던 시기여서 주위의 반대가 있었지만 연건평 600평에 이르는 대형 포교당을 세웠다.



자재 학사가 없어 이리저리 셋방살이하는 전북불교대학을 위해서였다. 재가불자들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을 위해 스님들이 건물을 지어 무상 임대해 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불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혜사는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는 이름없는 고아원이기도 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정혜사에

서 살았다. 3칸 방 하나 뿐이던 암자가 세

번에 걸친 중창과 적극적인 포교에 힘입어 이제 전주에서 으뜸가는 가람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정혜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중심에 항상 헤일 스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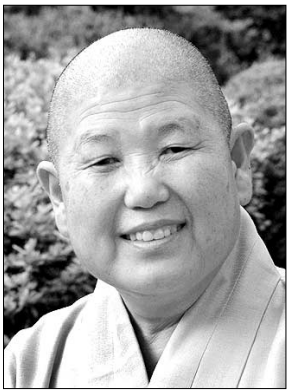
헤일 스님은 가까이서 보낼까 지 기도로 일관하시오.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은 노스님의 큰 원력과 수행공덕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이준영 기자

“講은 부처님이 내게 준 소임”

인터뷰

강주 묘순 스님



"내가 강(講)을 하게 된 건 부처님께서 내게 준 소임인가 봐요." 강주 묘순 스님은 1968년 지금은 없어진 화운사 강원을 졸업하고 75년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한문경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남달리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계를 받기도 전 속가나이 스물아홉에 이미 대강백 대은소하(大隱素荷)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고 강단에 섰다. 스님은 사실 처음에는 강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경을 보는 것은 더 해박하 소임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삼선포교원장인 지광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스님은 어려운 사정으로 강원을 다니지 못했던 비구니 스님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승가의 규범을 바로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강원 학인들에게는 특히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합니다." '인연' 닿는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 경(經)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평생 원력'이라는 묘순 스님은 학인들을 맡았던 행으로 자상하게 이끌어 주신다.

불교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대종사 추대법회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선 정통밀교 총지종!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는 「불교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대종사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교계 대덕과 사부대중께서는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48년(총기33년) 7월 20일(화) 오후 3시
- 장소 : 총지종 본산 총지사
- 문의 : 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종령추대봉행위원회위원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무진정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병철(동국대학교수)
	· 불교상당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최종석(금강대학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김상영(승가대학교수)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차척석(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정연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김호귀(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전문위원)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장교·주한·동산)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제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제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제학과 : 2004년 9월 7, 8, 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모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시암)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애전 수모리 삼덕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